

현대삼호重 ‘테라 신공법’으로 경영난 돌파

올 건조 선박 5척에 적용

공정 3주 단축 효과

생산성 높여 흑자 실현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윤문균 사장)이 선박건조에 신공법을 적용하는 전락으로 흑자실현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나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조선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5일 초대형 블록을 육상에서 제작해 이를 독(Dock)으로 옮겨 선체 조립을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테라공법’을 선박건조에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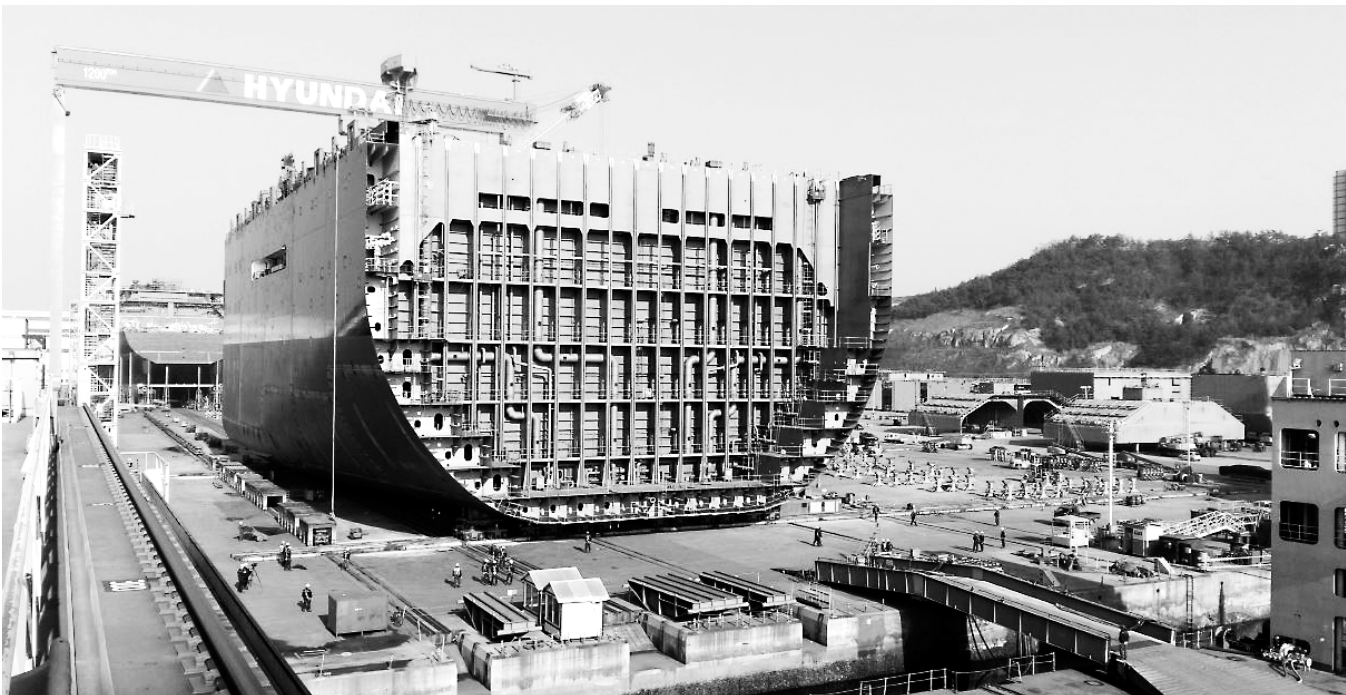
테라공법을 적용하면 앞 공정에서 작업 진행률을 높이는 선형화 효과로 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이번에 제작한 테라블록은 길이 89m, 폭 51m, 높이 30m로 무게만 1만여톤에 달하는 단일 선박 블록으로 세계 최대급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테라블록을 육상의 일반작업장에서 조립해 플로팅독으로 이동·진수시킨 뒤 티그보트(tugboat·예인선)로 드라이독에 얹혀 총조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총 5척의 선박을 테라공법으로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3주 정도 공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라공법은 6000톤 이상의 초대형 블록을 제작해 선박건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무게가 1500톤을 넘어설 경우 끌리랴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수 없어 블록을 독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



현대삼호중공업이 제작한 세계 최대급인 1만톤급 테라블록. 1만5000 TEU 컨테이너선 건조에 활용되며 선박 전체 크기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 테라공법 6000톤 이상의 초대형 블록을 육상에서 제작한 뒤 조립하는 방식으로 선박 제조를 단순화한 신기술이다.

라서 일반적으로 해상크레인을 보유한 조선사는 해상크레인으로 블록을 독으로 옮겨 선체 조립을 진행한다.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은 대형 해상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육상건조공법에 쓰이는 플로팅독을 활용한다. 육상에서 플로팅독까지 두 가닥의 레일 위에서 블록을 유압으로 들어올려 작은 기차 모양의 운반기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플로팅독의 인양능력은 4만톤이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이 이번에 적용하는 테라공법은 기존 방식보다 한 단계 진화한 공법으로 조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육상건조장 공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레일 위가 아닌 80m 가량 떨어진 일반 작업장에서 블록을 제작하는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블록을 플로팅독으로 옮기기 위해 기존 선로까지 측면으로 임시 레일을 가설해 이동시키는 공법을 고안해 냈으며 지난 3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는 게 현대삼호중공업의 설명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해당 블록을 플로팅독으로 이동하고, 드라이독의 진수 일정에 맞춰 오는 22일에 바다와 연결된 독 문

(Dock Gate)이 열리면 독안에서 선박 선체 조립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관계자는 “횡으로 임시 선로를 가설해 1만톤 중량의 블록을 옮기는 일은 조선업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며, 그동안 산업설비 제작과 육상건조작업을 진행하며 쌓은 수많은 경험과 기술력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테라공법 외에도 PE장 확충, 크레인 인양 능력 향상 등 공정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매출 4조 800억원 수주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남=문병선기자 moon@kwangju.co.kr

전남도, 비정규직 시급 7248원으로

정부 최저시급보다 1518원 많아

전남도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 시급 7248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6030원보다 1518원 많은 액수다. 전남도는 최근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기간제 근로자 26명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남도는 6일 “비도시지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분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어 12월 도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강성휘)를 개최해 2016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7248원으로 결정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을 받을 때와 비교해 25만원이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제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계층 보호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선 도청과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대상 인원은 272명이다.

최종선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제를 전격 시행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도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은정 있는 도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체성과 실효성을 가진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북 초등학교 시험 대신 성장평가제”

김승환 교육감 신년회견

중간·기말고사 전면 폐지

교사가 학생 관찰·기록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6일 “올해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의 일제평가 방식 중단 및 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평가 방식의 시험은 학생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창의력을 떨어뜨리며 교사의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막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교사가 아이들 한명 한명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성장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이 더딘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형별 원인 진단과 보충까지 통합해 지원하는 ‘맞춤형 책임교육’을 확대하겠다”면서도 “다만 중·고교의 평가제도는 입시와 연계된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도 고입제도의 완전 내신제 전환에 맞춰 중학교는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토론 및 협력학습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 교량 이름에 ‘무녀’ 넣어주요”

신시도~장자도 내년 완공

무녀도 주민들 명칭 건의

군산시 고군산열도의 무녀도 주민들이 신시도~무녀도 구간 교량(220m)에 사용될 다리 이름에 ‘무녀’ 명칭을 넣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군산시의 익산국도관리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와 신시도~무녀도~장자도를 잇는 총 8.8km 길이의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군산시는 내년말 완공 예정인 이 다리의 명칭을 공모중이며, 교량 6

개 중 우선 3개 다리의 명칭을 이달 말까지 신청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는 현재 신시도~무녀도 다리의 임시 명칭을 ‘단둥대교’로 사용하는 만큼 이를 후보군에 올려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무녀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무녀대교’도 명칭 후보에 포함시켰으며, 단둥대교도 후보군일 뿐”이라며 “공모로 선정된 명칭도 최종적으로 시지명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국민신문고 만족도 48%

권익위 운영평가 ‘우수’

정읍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발표한 국민신문고 운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과 성과 등이 미흡한 기관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의 주요 소통기능인 민원 처리 실태와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 등에 대한 운용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정읍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시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드물게 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해결에 주력해 오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에만 집단·진정·상담민원과 전자민원을 통해 총 1740여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만족도 평가에서도 47.7%를 받아 전국 평균 38.5%, 전북 평균 39.6%보다 월등하게 앞섰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전봉준 탄생 160주년 기린다

기념사업회 10일 행사 다채

동학농민혁명의 선봉장이었던 녹두장군 전봉준의 탄생 160주년 행사가 오는 10일 전북 고창군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전봉준 장군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자주·평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해마다 열린다. 전국의 동학기념사업회와 동학농민혁

명기념재단 관계자, 전봉준 장군의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봉정, 기념식 등을 한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그림 특별기획전, 영화상영 등도 이어진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고창은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며 전국적 봉기의 시발점이 된 무장기포의 고장”이라며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양호 매3억 8천만원
2.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5,100㎡ 황토주택3동 교통편리 매7억원
3. 나주시 봉황면 축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02,187㎡ 주택96㎡ 공장75㎡ 점포26㎡ 매2억4천만원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카페숍 최적지(신주목/구창고매 5억9천

농지/임야

1.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전1,528㎡ 혁신도시인근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매5억8천만원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6,331㎡ 혁신도시 근거리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매7억4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답4,000㎡ 혁신도시인근 매2억원
4.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전 김나무 과수원 6,165㎡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매3억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매7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답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원
7.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전 7,273㎡ 혁신도시근거리 보전 관리지역 연수원 공장적합 투자유망 매8억5천만원
8.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답13,530㎡ 면소재지 매2억4천만원
9.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답 4,807㎡ 생산관리지역 농로양호 투자유망 매1억6천만원
10.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1,384,140㎡ (대지, 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11.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과수원 24,884㎡ 매4억8천만원
12.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02,480㎡ 도로양호 일부개간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원
13.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전 배18년생 과수원 7,934㎡ 혁신도시 1km 투자유망 매7억2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무안군 망운면 옥지에서 650m 떨어진 독립섬 별장, 전원주택식적합 39273㎡(11880평) 공사가 2억6천 감정 5억3천선 매도 4억2천

투자/매도/교환

- 대인시장 인근 대지 394㎡, 건평 1455㎡, 전세2억, 월700선 15억5천
- 보성군 화천면 영천리 11990㎡ 전원주택 단지·펜션·종교시설·요양시설 등 다용도 은행 8천 매도 3억2천6백만원
- 담양군 남면 광주읍 부근 대지 2208㎡ 빌라, 식당등 적합 5억 8천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펜션 적합지 2161㎡ 교환가능 3억3천
- 전원주택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 건평 73㎡ 9500만원
- 담양읍 APT 부지 2층 주거지 4838㎡(1463평) 은행7억 매도 15억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자연녹지 1861㎡ 가든 별장등 적합 1억천
- 장흥군 북이면 사거리 펜션·전원주택 적합 5000여㎡ 평당 8만원
-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산 34809㎡ 매도 1억5백
- 광산구용중 평동중학교, 평동공단 부근 1층주거지 1787㎡ 빌라·원룸 등 적합 공시지가 4억 매도 평당 115만원(6억2천)
- 충장로 5가 건물 대지 265㎡ 건평 995㎡ 매도 8억8천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적합 전 9917㎡ 1억
- 순창군 북흥면사무소 부근 대지 991㎡ 전원 주택 적합 4200만원
- 진도군 고군면 산 5101평 화순 동면 천덕리 대지 97평 5천만원
- 화순군 동면 전원 주택지로 조성된 땅 5086㎡ 2억1500만원
- 나주시 아파트 21평형 보안기로 각종 토지와 교환가능 분양 1억2천 대출 6300만원 임대도 가능
- 신가동 원룸 건물 대지 67평 원룸 10개와 35평형 안집, 안집은 공실 보증금 6천에 월 190선 매도 4억6천
- 함평군 신광면 대동 저수지 부근 임야 262810㎡(75000) 한옥마을·전원주택 단지등 적합 5억 6천만원
- 영암군 삼호읍 상업지역 221평 115평 평당 160만원

이전해 갈 물건

- 무안군 망운면 전2238㎡ 현경면 대지 555㎡ 대출 8천만원
-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 1009㎡ 건축물 대장있음 대출 9천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청과 한전 부근

법원경매(공매,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북구 오룡동 8층근린시설 침단산업단지내 대지1652.9㎡ 건물2991.3㎡ 건물상태양호 감정가35억4천2백 최저가19억8천3백 감정가의56%

★화순군 동면 언도리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토지146411㎡ 건물3290㎡ 화순읍에서5분거리위치 감정가84억4천3백 최저가37억7천8백 감정가의45%

★북구 두암동 쌍둥이주유소부근 지하1층~지상4층 대지386㎡ 건물1,132㎡ 점근성,가격★★★★ 건물리모델링중, 왕복4차선도로접 코너입지 감정가10억4천9백 최저가7억3천4백 감정가의70%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2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감정가30억6천5백 최저가17억1천6백 감정가의56%

★서구 마복동 주유소 광주아울렛부면 대지1132㎡ 건물277.9㎡ 2층건물 감정가 9억9천6백 최저가 6억9천7백 점근성,광고효과★★★★ 감정가의70%

※전지역 병원(부지)매매,매입 상담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

개인병원부지

- ☑ 상업지역 108평
- ☑ 사통팔달 교통요지
- ☑ 터미널부지 내
- ☑ 인구급증 예상지

귀향공인
010-5236-7458
KTX 개통 송정역 인근 부동산전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길 63년

光州日報
세종일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